

## 북중미 월드컵 성패 달린 '베이스캠프'... FIFA 선정 기준은

포트·경기장 이동거리 순으로 '보급자리' 선정  
둘 다 같으면 FIFA 랭킹 높은 팀에 우선권 부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성패를 좌우할 베이스캠프 선정에 관한 참가국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사상 최초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 이 공동 개최하고, 48개국으로 확대된 열리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은 지난 5월 조추첨식을 마친 뒤 베이스캠프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보급자리가 될 베이스캠프 선정은 대회 성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현지 적응의 토대가 되며, 선수단 컨디션 관리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북중미 월드컵은 베이스캠프 선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참가국들이 원하는 곳을 빠르게 선정할 뒤 FIFA에 제출해 베이스캠프를 확정하는 '선착순'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참가국들이 후보지 5곳을 꼽아 우선순위를 매겨 내년 1월9일까지 제출하면, FIFA가 베이스캠프를 선정한다.

당연히 인기 있는 베이스캠프에는 복수의 팀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FIFA가 미리 정한 규정으로 정한다.

희망 후보지가 겹치면, 가장 먼저 북중미 월드컵 포트가 높은 팀에 우선권을 준다.

FIFA는 조 추첨을 위해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포트를 4개로 나눴다. 지난달 기준

으로 22위인 한국은 포트2에 배정됐다. 포트1에 속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이 원하는 베이스캠프 후보지와 포트2 또는 포트3에 속한 국가들의 후보지가 동일하면 포트1 국가에게 먼저 선택권을 부여한다.

만약 같은 포트에 속한 팀끼리 후보지가 겹치면 '경기장까지의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북중미 3개 나라에서 펼쳐지는 이번 월드컵은 참가국마다 이동거리가 천차만별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세 경기 이동 거리가 396마일(약 637km)로 48개 참가국 중 7번째로 짧다.

반면 같은 A조에 속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440마일(약 3927km)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포트 국가들의 경기장 이동 거리도 차이가 없다면, FIFA 랭킹으로 따진다.

홍명보호의 베이스캠프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된 과달라하라 같은 포트2의 콜롬비아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포트가 같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더 짧은 한국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과달라라라에서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른다.

다만 홍명보호의 베이스캠프 1순위가 과달라라라일지는 미지수다. 조 추첨을 마

A조	B조	C조	D조
멕시코 남아공 대한민국 FIFA 유럽PO D	캐나다 FIFA 유럽PO A 카타르 스위스	브라질 모로코 아이티 스코틀랜드	미국 파라과이 호주 FIFA 유럽PO C
E조	F조	G조	H조
독일 퀴라소 코트디부아르 에라도르	네덜란드 일본 FIFA 유럽PO B 튀니지	벨기에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	스페인 카보베르데 사우디아라비아 우루과이
I조	J조	K조	L조
프랑스 세네갈 FIFA 대륙간 PO 2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	포르투갈 FIFA 대륙간 PO 1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

친 뒤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8곳을 살펴본 홍명보 감독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지대에 대한 적응과 날씨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과달라라라와 함께 거론되는 또 다른

후보지는 푸에블라다. 멕시코시티 인근인 푸에블라라는 평균 해발 고도가 2000m 안팎이다. 과달라라라(1시간20분), 몬테레이(1시간30분 이상 비행시간)로 이동도 용이하다. /뉴시스



땀과 꿈이 만나는 전지훈련지 구례군, 동계 훈련 시작

2025년 3만명 27억 경제효과에 이어 2026년 3만5천 명 유치 목표

구례군이 12월부터 국내 주요 스포츠팀들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활기를 띠며 새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열기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4일간 체력강화와 전술훈련을 진행 중이며, 광주대학교 축구팀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2일간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지훈련에 참가한 관계자는 "우수한 체육시설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구례군은 최적의 훈련지"라며 "매년 믿고 찾는 곳"이라고 말했다.

12월을 시작으로 2026년 1월부터는 초·중등부 축구 스프링캠프를 비롯해 씨름,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과 대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학교팀부터 실업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선수단이 구례를 찾으며 지역은 한층 더 활기를 띠 전망이다.

올해 구례군을 방문한 전지훈련 선수단은 약 3만 명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와 음식점,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늘어나며 약 27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구례군은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에서 '노력상'을 수상하며, 전국 대표 전지훈련 명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026년 전남체전 개최를 앞두고 체육시설 확충과 개보수를 추진해 전지훈련 여건을 강화하고, 축구 종목을 중심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겠다"며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례군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정 운암 3단지 재건축청정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의)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 '셔틀콕 여제' 안세영, 3년 연속 'BWF 올해의 여자 선수상'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상도 수상

안세영,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올해의 여자 선수상 수상. 사진=BWFSNS 캡처

안세영은 지난 15일(한국 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WF 시상식에서 여자단식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BWF 올해의 선수상은 지난 1년(2024년 12월~2025년 11월)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상하며, 안세영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영예를 안았다.

또 안세영은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돼 2관왕에 올랐다. BWF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격려가 된다. 우승은 내 노력을 증명하지만, 올해의 선수상은 다른 선수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과 존경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세영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중국 항저우의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여자단식에 출전한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올 시즌 배드민턴 역사에 길이 남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 모모타 겐토(일본)가 세운 'BWF 단일 시즌 최다 우승(11회)' 기록에 도전한다. 한편 안세영과 마찬가지로 올해 10승을 기록 중인 '황금 콤비' 김원호-서승재(이상 삼성생명) 조는 남자복식 올해의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김원호-서승재는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슈퍼 300)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슈퍼 750) ▲일본오픈(슈퍼 750)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중국마스터스 ▲코리아오픈(슈퍼 500) ▲프랑스오픈 ▲일본 마스터스(슈퍼 500) 우승으로 시즌 10승을 달성하며 세계랭킹 1위를 꿰찼다. /뉴시스

### K리그2 전남, 새 사령탑에 박동혁 선임... 송중찬 대표이사 취임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새 사령탑으로 박동혁 감독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의 제17대 감독으로 선임된 박동혁은 2002년 전북 현대에서 프로 데뷔해 울산 현대(현 울산 HD), 감바 오사카, 가시와 레이슬(이상 일본), 다렌 스테(중국) 등을 거쳐 2014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K리그 통산 244경기, 국가대표로 18경기를 뛰었다. 은퇴 후 2015년 울산에서 스카우터와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박동혁 감독은 2018년 만 39세의 나이로 K리그2 아산 무궁화(현 충남아산) 감독으로 데뷔해 부임 첫 해 K리그2 우승과 감독상을 거머쥐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경남FC와 결별한 뒤 한국프로축구연맹 TSG(기술연구그룹) 위원을 지낸 그는 전남 지휘봉을 잡고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했다.

박동혁 감독은 프로 감독으로 통산 255경기(K리그2 238경기·코리아컵 17경기)를 지휘했다.

박동혁 감독은 "전남의 명가 재건의 선봉장이 되도록, 감독 인생을 걸고 혼신의 힘을 쏟아부겠다"며 "원팀으로 똘똘 뭉쳐 K리그1 승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남 지휘봉을 잡은 박동혁 감독은 코칭스태프 구성 및 훈련 일정 수립 후 선수단을 소집해 1차 동계 훈련에 나선다.

또 내년 1월10일에는 태극 방콕으로 2차 동계 훈련을 떠나 2026시즌 준비에 박

전남드래곤즈 제 17대 감독  
**HEAD COACH**  
박동혁 | PARK DONGHYUK

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은 제14대 대표이사 송중찬 전 포스인터내셔널 여자탁구단 스피너스 단장을 선임했다. /뉴시스